

데님의상의 현대복식사적 분석

김정애* · 이효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0세기이후의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원화 경향으로 흐르면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원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여러 가지 패션요소들이 현대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중 데님의상의 다양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데님의상이 처음 선보였던 19세기 중반에는 원래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청년들의 일반적인 복식으로 수용되어 그들의 새로운 의식을 표현해주는 기성세대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의 복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1960년대에는 청년문화의 상징적인 복식이 되었다. 이후 현대에 들면서 데님의상은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20세기후반 이후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중요한 패션아이템으로 채택되어왔다. 데님의상은 이때부터 하이패션에서 비중을 가지게 되었고, 최고급원단과 섬세한 수공예적 기법으로 장식되어 기존의 데님의상과 차별되며 발전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장식화되는 경향은 21세기에 들면서 더욱 눈에 띄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물질문명사회의 무미건조하고 대량생산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의 욕구에 대한 표출로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수공예적 요소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친화와 정신적 위안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 요소에 대한 갈망의 욕구와 더불어 화려하게 장식화되어가는 데님의상에 내재된 미적 의미를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현대복식사의 관점에서 장식화 된 데님의상의 위상과 앞으로 전개되어갈 데님의상의 발전 속에 미적 의미와 함께 인간의 정신적 측면이 어떻게 내재되어있는지 분석하여 유사전공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데님의상이 단순 캐주얼복에서 패션의상으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20세기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하였다.

현대복식에서 데님의상의 장식성이 부각되고 있는 배경에는 파티문화, 그리기문화, 해체문화를 들 수 있다. 1) 파티문화의 경우, 본래 서양의 사교문화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 파티문화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빈번히 열리며 파티의 종류에 따라 에티켓이나 패션이 다르지만 몇 가지의 격식 있는 파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파티에서는 간편한 복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서구식 파티문화가 서서히 그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상에 있어서도 데님의상의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공예적 기법이 가미된 데님의상이 파티룩으로 표현되고 있다. 2) 그리기 문화의 경우, 오늘날 각종 건물의 내외 벽이나 지하철 열차 심지어 자신의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유희를 충족하는 낙서처럼 굵거나 휘갈겨 그리거나 문자 또는 드로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리기 문화는 데님의상에도 응용되어, 기존의 틀과 형식을 벗어난 더욱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데님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해체문화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일단 뒤집어 보고 기존의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해체주의를 근거로 하는 해체문화는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데님의상에서 울 폴립이나 울 뜯기, 찢기 등 소재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 의미에 대한 탈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체문화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